

“전주대변혁 반드시 완성하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민선 9기 출사표

우범기 민선 8기 전주시장(직무정지)이 ‘전주대변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민선 9기 예비후보 등록을 공식 알렸다.

특히 민선 8기 지난 4년간의 성과와 최근 도를 넘는 흑색선전 문제,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짚었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18일)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끝내고 민선 9기 전주시장으로 선택받기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장의 책무는 잠시 내려놓지만, 전주의 미래를 향한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낀다”면서 “지난 4년 전주를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왔고 성과도 진통도 모두 전주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운을 폈다.

그는 이어 “전주의 변화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저는 이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한다”면서 “민선 9기에는 도시 구조가 달라지고 시민의 삶 수준

도 높아질 것”이라며 민선 8기 성과와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글로벌마이스 복합 단지 조성, 대한방직부지 개발 확정,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역세권 개발 재개 등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후백제 역사문화와 덕진공원을 비롯한 4대 관광거점이 전주의 미래 자산을 두텁게 만들고 있고, 청년정책과 함께복지 같은 전주형 생활정책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원주 전주 통합을 이어 김재와의 통합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 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본인을 향한 흑색선전이나 무책임한 정치공세 등에 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주시 채무 1조원 주장은 시민들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가짜뉴스다”면서 “전주시 지방채는 2025 말 기준 6225억원, 채무비율은 20.1%로 정부의 재정주의기준(25%)을 하회한다”고 설명했다.



우범기 민선 8기 전주시장(직무정지)이 ‘전주대변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민선 9기 예비후보 등록을 공식 알렸다.

이어 “민선 8기 발행한 지방채(4012억원)도 공영과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 매입(2285억원)과 컨벤션센터와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의 사회기반시설 구축비로 사용됐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에 관한 이야기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감점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이의신청도 하지 못했다”면서 “의도적인 거짓

은 결코 아니며 SNS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제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된 만큼 오직 전주시민의 평가를 믿고 더 많이 더 힘차게 뛰겠다”면서 “전주의 변화를 열망하는 위대한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전주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전주의 맛’ 세계에 알린다

시, 다국어 메뉴판 지원·위생·친절 실천 결의대회 가져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외식업계와 손을 맞잡고 ‘전주의 맛’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19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구지부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국어 메뉴판 지원 릴레이 캠페인’ 및 ‘위생·친절 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내빈과 유관기관 관계자, 외식업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외식업의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다.

특히 참석한 외식업주들은 행사의 핵심인 위생·친절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자발적인 서비스 실천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정밀하고 안전한 주방 환경 조성 △밝은 미소와 친절절한 서비스 제공 △적정 가격 및 투명한 가격 표시 등으로,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주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글로벌 관광시대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들

이 언어장벽 없이 전주의 맛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국어 메뉴판 지원 릴레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 캠페인은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전주의 맛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간체, 번체)·일본어가 병기된 다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하고 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운동이다.

캠페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범시민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작된 이번 릴레이는 공무원과 외식업협회, 전주지역 음식점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구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쌀 1톤(10kg 100포)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영업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 영업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시민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18일 완산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전주시 통합관제센터,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생명 구조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시민을 구조했다.

전주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자살 시도로 의심되는 시민을 신속히 발견하고 경찰 및 소방에 즉시 신고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은 지난달 27일 자정 CCTV 모니터링을 하던 중 덕진구 이중호수 일대

에서 50대 남성이 호수 난간에서 위험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7분 만에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해 해당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또한 해당 관제요원 등 4명은 실종 노인 및 실종 장애인 발견과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18일 완산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권희성 기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주시, 개인 116명·법인 133곳 공개 이전 자진 납부·소명 기회 부여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이전에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최고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으로,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3억 원과 법인 51억 원 등 총 10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날 중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체납액 납부 여부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명단을 확정·공

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등으로, 이러한 상세 정보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올해 금융기관 대어금고 압류 및 개문을 통해 6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 6명의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추심해 67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에는 가택수색 통해 현장에서 1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압류등산 165건을 공매해 62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역 내 경로당에 전문강사가 찾아가 키오스크 조작 방법 등을 알려주는 ‘전주시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어르신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 진행

전주시가 음식점과 카페,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일상 곳곳에 설치된 무인주문시스템(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경로당에 전문강사가 찾아가 키오스크 조작 방법 등을 알려주는 ‘전주시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육은 강사가 키오스크 음식 주문과 기차표 예매 등을 직접 시연하

고,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이 연습용 기기를 통해 실습하는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76개 경로당에서 진행된 ‘전주시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은 707명의 노인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시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반영해 올해 약 30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